

‘소형 제릴라점포’로 수도권 공략... 총자산 6년만에 3배

2018 따뜻한 금융 행복한 한국

7 김한 JB금융지주 회장 (좌)

**지주사 회장직-은행장직 분리
디지털·글로벌 금융 강화 가속**



JB금융지주 여의도 사옥. /JB금융그룹

JB금융지주 김한 회장이 집권 6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는 1·2대 회장을 지내는 동안 지속적인 인수합병(M&A)과 소매금융, 수도권 진출 등을 통해 그룹의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JB금융은 지난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지방금융지주를 강타했던 ‘CEO(최고경영자) 리스크’ 없이 고객과의 신뢰를 쌓았다. 올해도 강점인 소매금융을 비롯해 디지털·글로벌 금융까지 박차를 가해 ‘강소 금융지주’로 부상할 전망이다.

◆소매금융으로 작지만 강하게... 실적 高高
김 회장은 2013년 JB금융지주의 초대 회장으로 취임한 뒤 ‘작지만 강한 금융지주’를 목표로 외형 확장과 동시에 서민금융(소매금융)을 쟁겼다.

외형 확장은 M&A를 이용했다. 김 회장은 취임 후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등을 인수하며 공격적으로 그룹의 덩치를 키웠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JB금융의 총자산

은 2013년 9월 말 기준 15조52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말 47조86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영업은 대기업이나 PB(자산관리) 서비스보다는 중소기업·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소형 점포’를 이용한 수도권 진출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김 회장은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라 점포를 줄여나가는 시중은행과는 다른 전략을 폈다. 수도권에 소형 점포를 늘려 고객과의 접점을 늘렸다. 소형 점포는 건물 2층 이상에 입주, 직원 4~6명으로 운영해 고정비를 줄였다.

현재 전북은행의 수도권(경기도·서울·인천) 점포는 17개, 대전은 9개다. 광주은행의 수도권 점포는 31개로, 두 은행의 소형 점포는 57개까지 늘었다.

그 결과 JB금융은 지방금융지주와의 경쟁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냈다. JB금융은 지난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58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28.5% 증가한 2417억원을 시현했다. 3분기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을 봤을 때 DGB금융은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 BNK금융은 6.39% 증가에 그쳤다.

올해는 지주사 회장직과 은행장직을 분리한 만큼 발전 속도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광주은행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회장·행장직을 분리한 바 있다.

유진투자증권 김인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 통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큰 폭의 순이익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며 “성장보다는 마진 관리에 집중하면서 이차이익 증가 추세 지속과 전북은행 중심의 자산건전성 개선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디지털·글로벌 강화 본격화

올해 은행권의 화두인 디지털·글로벌 금융 강화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 등장에 대비한 디지털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주력 계열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모두 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빛을 보진 못하고 있다.

이에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올해 경영전략 중 하나로 디지털 금융 강화를 꼽

았다. 두 은행의 은행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지방은행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다짐을 내놓기도 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다각화에도 나선다. JB금융의 손자회사이자 전북은행 자회사인 프놈펜상업은행은 현지에 14개 점포를 두고 지난해 3분기 3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6.8% 성장이다. JB금융은 현지화 전략과 그룹의 경영기법·시스템을 접목해 프놈펜상업은행을 캄보디아 3대 은행으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JB우리캐피탈 해외법인인 JB캐피탈 미얀마도 4개의 점포를 갖고 있다.

광주은행도 최근 글로벌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강소성 무석시에 사무소를 열었다. 광주은행은 이번 중국 진출로 JB금융이 진출한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주요 거점을 적극 활용하고 중국 사업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등 해외 영업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KB손보, 여성임원 비중 20%로 확대한다

**인혜원·김경애 상무 등 7명 등용
로드맵 정비 등 2020년까지 추진**

KB손해보험은 오는 2020년까지 사내 여성관리자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단행된 2018년 KB손보 임원 및 부서장 인사에선 임원 2명(자회사 포함), 부서장 5명 등 총 7명의 여성 인력이 등용됐다. 업계 내 여성임원 비율이 2.2%로 낮은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이번 KB손보의 인사는 파격적이다.

면면을 살펴보면 먼저 KB국민은행에서 신용리스크부장으로 근무해 온 인혜원 상무가 KB손보 리스크관리본부장(CRO)으로 옮겨왔다. 또 자회사인 KB손보C



김경애 KB손보CNS 상무, 인혜원 KB손보CNS 상무

NS의 운영지원부장이던 김경애 상무는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새로운 중책을 맡게 됐다.

부서장으로 발령 받은 5명 가운데 박영미 부장, 김경미 부장은 각각 인사부장과 영업교육부장을 맡았다.

KB손보는 지난 2016년부터 사내 여성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이들을 위한 교육 및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로드맵을 정비하고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왔다. 당시 신설된 드림캠퍼스는 여성리더 육성이란 목표에 따라 진행되는 KB손보 최초의 여성사내대학 교육이다. 지난해 총 40명의 1기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현재 34명의 2기생들이 다채로운 커리큘럼에 맞춰 교육을 수강 중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12.4%의 여성관리자 비중을 오는 2020년 20%까지 확대하기 위해 복지제도 강화 등 여성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가계대출 증가세 9개월 만에 주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효과
신용 등 기타대출은 21.6조 증가**

최근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계대출 억제책을 펼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하는 등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돈 빌릴 곳이 마땅찮은 서민들이 신용대출로 옮겨가면서 향후 대출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17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66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3월 2조9000억원 이후 9개월 만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이 2조

8000억원, 기타대출이 1조3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의 경우 지난해 3월 2조6000억원 이후 가장 낮았다.

박용진 한은 시장총괄팀장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가계부채 대책이 효과를 보이면서 주담대 증가폭이 줄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이 발표될 예정으로 주담대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담대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가면서 지난해 신용대출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1조6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편제한 지난 2008년 이후 최대치다. 잔액만 현재 200조원에 육박한다.

/이봉준 기자

‘방탄소년단’ KB국민은행 얼굴 된다

KB국민은행은 10일 글로벌 음악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방탄소년단(BTS)’과 모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등 정상급 아티스트를 제치고 2017 빌보드 뮤직어워드 ‘톱 소셜 아티스트’를 거머쥐며 글로벌 음악시장의 판도를 좌우하는 블루칩으로 급부상한 그룹이다.

특히 최근 선보인 ‘마이크 드롭(Mic drop)’ 리믹스의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억뷰를 넘어서는 등 출시한 뮤직비디오 중 12편이 1억뷰 이상을 기록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초부터 본인들만의 차별화된 장르와 음악, 특히 또래 세대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한국어 노



방탄소년단(BTS).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랫말로 담아 전세계를 무대로 끊임없이 도전해 온 방탄소년단의 성장에 주목해 왔다.

‘성공 DNA’ KB 도전정신과 맞아
디지털플랫폼 ‘리브’ 광고 출연

이번 모델발탁은 방탄소년단의 ‘도전, 혁신, 글로벌’이라는 성공 DNA가 KB국민은행이 추구하는 도전정신과 맞아 떨어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코리아 베스트가 글로벌 베스트가 될 수 있다는 도전정신이 KB국민은행 브랜드정체성(Brand Identity)의 핵심”이라며 “방탄소년단은 과거 비보이, 김연아 선수 등이 보여준 ‘대한민국 1등을 넘어’ 광고 캠페인의 의미를 2018년의 정서로 재해석해줄 최적의 아티스트라고 판단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먼저 KB국민은행의 디지털플랫폼 ‘Liiv(리브)’의 영상광고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i@

우리은행, 서민 주거복지 안정 총력

서울투자운용과 임대주택 공급 MOU

우리은행은 지난 9일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서울투자운용과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과 서울투자운용은 리츠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금융지원, 임대주택 매입 및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리츠설립에 대한 지원, 자산보관업무 등에 관해 상호 간 우선 협상권을 갖는다.

서울투자운용은 2016년 6월 설립 이후 ‘서울리츠 1,2,3호’를 통해 행복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4000세대 이상 공급했으며, 현재 1조2000억원의 자산을 운용 중이다. 2018년에도 임대주택을 2000호 이상 공급하고 복합개발사업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창재 우리은행 부동산금융그룹 그룹장(사진 오른쪽)이 김우진 서울투자운용 대표이사(사진 왼쪽)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 관계자는 “양 기관은 그동안 개별 사업단위별로 금융지원 서비스를 협의해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다”며 “이번 포괄적 협약을 계기로 서민 주거복지 안정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